

# 韓國人の 社會的 剝奪感에 관한 研究

金泳謨\* · 金淵明\*\*

## I. 研究의 目的 및 方法

### 1. 研究의 目的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과학계에서는 불평등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한편으로는 80년대 이후 계급·계층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쟁으로 나타났으며<sup>1)</sup> 다른 한편으로는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의 불공평한 분배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의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sup>2)</sup>도 나타났고 또한 국사회의 불평등구조로 인한 갈등문제를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로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up>3)</sup>

한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주로 빈곤문제에 집중되어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도시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많이 실시되었으며<sup>4)</sup>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생활보호사업에 있어서의 자격기준, 급여수준 그리고 전달체계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대적 빈곤 또는 박탈감을 과연 우

\*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教授

\*\* 中央大 社會科學研究所 研究員

1) 金泳謨, 태방후 한국사회계급 연구의 동향과 과제, 「社會科學研究」 제 1집, 중앙대 사회과학연구소, 1987 참조

2) 林禮覺,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韓國社會開發研究」,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p. 116

3) 宋 復, 계급갈등과 계급구조, 「한국사회와 갈등연구」, 한국사회학회편, 1985

4) 金泳謨·金成天, 도시빈민의 생활상태에 관한 연구, 「社會政策研究」 제 8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金泳謨外, 한국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社會政策研究」 제 1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金 燕外, 「형세민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1982

리나타 국민들이 어느정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탐구하여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박탈이라는 차원 특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측면에서 불평등문제를 연구하여 보려고 한다. 흔히 얘기되는 절대적 빈곤을 이러한 박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객관적인 물질적 박탈로서 제규정할 수 있다. 더우기 본 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교육, 소득, 의료, 주택 등 사회정책의 주요 대상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이것이 가시적인 욕구로 표출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책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 2.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교육, 주택, 소득, 의료등에 대한 한국인의 박탈감을 파악하고자 질문지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는 전국의 가구주를 모집단으로 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전국을 서울, 중부, 호남, 영남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한 지역표집을 하였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학력·직업을 중심으로 다단계층화표집을 실시하여 추출하였다.

도시의 층화방법은 학력의 경우 도시 전체 인구중 고졸인구의 비율, 직업은 농·어업, 수산업종사자의 비율을<sup>5)</sup>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후 직할시는 당연 표본으로 하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도별로 분리하여 층화등급이 높은 1개 시와 낮은 1개 시를 선발한후 조사목적에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3개 시를 추출하였다.

표본의 할당은 일단 4개 지역에 균등하게 할당한 후 가구수를 고려하여 재조정하였고 층화등급이 높은 도시, 낮은 도시, 농어촌을 3:1:1의 비율에 가깝게 할당하였다.

선정된 표본도시와 농어촌에서 구와 면을 표집할 때는 층화표집과 체계적

5)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198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이다. 직업, 학력외에 소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전국적인 자료가 없다.

지역표집<sup>6)</sup>을 병행하였다. 도시의 구와 농촌의 면에서의 표본수의 할당은 가구수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면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표집 단위인 가구를 추출할 때는 각 동네에서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3개 통을 추출한 후 주민등록명부에서 등간격으로 무작위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표본지역과 표본수는 표 1과 같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2,703개이며 표본회수율은 93.5%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 가구들은 사전에 면접훈련을 받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87년 10월 1일에서 동년 10월 18일까지였다. 자료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표 1〉 조사지역 및 표본수 (단위: 가구)

지 역	표본가구
서울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699
충부지방 인천시(중구, 남구, 북구), 대전시(동구, 중구),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군, 충청북도 청원군, 충청남도 부여군	618
호남지방 광주시(동구, 서구, 북구), 전주시, 목포시, 전라남도 광산군, 영암군, 전라북도 완주군	602
영남지방 부산시(중구, 서구, 북구, 해운대구), 대구시(중구, 북구, 수성구) 울산시(중구, 남구), 안동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밀양군, 진양군	784
합 계	2,703

## II. 理論的 背景 및 分析틀

빈곤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용어는 「The American Soldier」<sup>7)</sup>의 저자들이 상이한 지위와 경력을 갖고 있는 군인들의 군복무에 대한 태도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한 해석적인 성격을 지닌 용어중의 하나였고<sup>8)</sup> 저자들은 이 용어에 대해 어떤 확실한 정의도 하지 않은채 삼만하게

6) 여기서 사용한 자료는 내부부발행 1985, 86년판 「한국행정구역통감」이다.

7) S.A. Stouffer, et.al, *The American Soldier*,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49

8) R.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Y., Free Press, 1968, pp. 28?

사용했으나 Merton 은 이 용어가 갖는 상대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일반화된 분석적 개념으로서 사회이론과 합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up>9)</sup>

그후 Runciman 은 이 용어를 이용하여 영국 육체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계급, 신분, 파당 party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는 Weber의 관점을 이용하여, 계급을 소득, 신분을 존경, 그리고 파당을 노동조합의 권력행사로 해석하여 육체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측정하였다. Runciman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이던 사회적 불평등이던 간에 실제적인 불평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그러나 이 용어가 빈곤연구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빈곤연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Townsend의 노작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에서였다.

Townsend는 기존의 빈곤개념이 협의의 소득개념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제반자원이나 생활양식을 포함한 상대적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빈곤문제를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Rowntree가 주장한 유명한 빈곤개념 즉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화폐 소득의 결핍'을 비판하면서 이 빈곤 개념을 ".....육체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준과 관련된 영양상의 박탈"<sup>11)</sup>로 재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빈곤을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규정하면서 불평등의 연구를 위해서는 박탈의 세가지 측면, 즉 객관적 박탈, 관습적으로 인정된 혹은 규범적 박탈, 그리고 개인의 주관적 혹은 집단적 박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2)</sup> 그는 객관적 박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음식, 의복, 광열, 집안의 문화시설, 주거조건과 부대시설, 노동조건, 보건, 교육, 환경, 가족관계, 오락, 사회관계등 12개 항목에서 60개의 박탈지표를 구성하였다.<sup>13)</sup> 그가 말한 관습적으로 인정된 박탈이란 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

9) *Ibid.*, p. 289

10) W.G. Runciman,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Justice*, London, R.K.P, 1968

11) P. Townsend,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Berkel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9, p. 38

12) *Ibid.*, p. 48

13) 12개 박탈지표의 자세한 내용은 P. Townsend, 전게서, pp. 1173~1176을 참조. Townsend

정하는 빈곤선을 의미한다. 공적부조의 선정기준이 되는 빈곤선이 이 경우의 대표적 보기이다. 세번째로 주관적 박탈은 특정집단과 비교된 주관적인 박탈의 느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문제를 접근한 Townsend의 연구는 물론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하지만<sup>14)</sup> 빈곤문제를 협의의 소득개념에서 탈피시켜 기존의 빈곤연구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제반 생활자원이나 사회적인 관계망(예컨대, 교섭감)까지 포함하여 총체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빈곤연구에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 하다.

본 연구에서는 Townsend의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그가 제시한 박탈의 세가지 측면중 사회정책의 주요대상인, 교육, 소득, 의료, 주택, 그리고 음식 및 의복에 대한 한국인들의 주관적 박탈감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6가지 지표는 Townsend가 말한 박탈의 유형중 사회적 박탈 즉 가족생활, 여가 생활이나 지역사회의 참여 등은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주로 물질적 박탈<sup>15)</sup>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직업, 학력, 지역등의 변수별로 측정하여 보고자 한다.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란 용어속에는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항목에 준거집단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가 특정 직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거집단이 아닌 일반적인 의미의 '다른 사람들'이란 말을 삽입시켰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박탈감의 질문항목은 "선생님은 자신의 소득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느끼십니까?"이다.

상대적 박탈감의 측정은 Likert의 척도를 응용하였다. 즉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매우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분류한 다음에 매우 만족에 -2점을, 만족에 -1점을, 불만족에 1점을, 그리고 매우 불만족에 2점을 가중하여 각 지표의 박탈 지수를 구성하였다. 그저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각 지표의 평균치가 0

는 1985~86년에 행한 「빈곤과 런던의 노동시장」이란 조사에서 이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13개 항목에 총 77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P. Townsend, "Deprivation" in *Journal of Social Policy*, 1987, Vol. 16, pp. 142~144 참조

14) V. George & P. Wilding, *The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K.P., 1984, p. 19 참조

15) Townsend, *op.cit.*, 1987, p. 136 참조

점을 기준으로 2점에 가까워질수록 박탈감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치가 0점이하로 나타나면 즉 -로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Ⅲ. 社會的 剝奪感의 測定

#### 1. 所得의 剝奪感

한 사회에서 산업화가 진행되면 농업을 생계의 원천으로 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가 되고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대가로서 임금에 모든 생활능력을 의지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sup>16)</sup>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자계를 유지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며 이는 곧바로 체제의 안정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현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조사한 한국인의 소득에 대한 박탈감은 표 2와 같다.

(표 2) 소득의 박탈감

번	수	지 수(실수)	번	수	지 수(실수)
지 역	서울시	0.10(697)	학 력	극종이하	0.41(409)
	직할시	0.18(873)		중 종	0.32(411)
	중소도시	0.21(698)		고 종	0.19(1943)
	농어촌	0.30(424)		대종이상	0.00(812)
직 업	전문기술직	0.05(387)	계층의식	上 下	-0.42 (89)
	관리직	0.02(231)		中 上	-0.17(650)
	사무직	0.08(420)		中 下	0.14(965)
	판매직	0.22(341)		下 上	0.44(664)
	서비스직	0.18(332)		下 下	0.75(314)
	농업직	0.38(238)			
	생산직	0.48(201)			

비고: 1) 실수의 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은 무응답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2) 직업에서 실업자와 학생은 사례수가 적어 제외하였고 기타(대부분이 주부, 446 사례)도 제외하였음. 계층의식에서도 上上層은 사례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이하의 모든 표에서도 동일함.

16) 원래 소득은 임금을 포함하여 이자등의 재산수입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편용상 소득과 임금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소득의 박탈감을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 사람들이 여타 지역사람들에 비해 가장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소도시, 직할시, 서울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도시사람일수록 소득의 박탈감이 적으며 농촌사람일수록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의 박탈감을 직업별로 보면 관리직은 박탈지수가 0.02로서 소득에 대한 박탈감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기술직이나 사무직도 박탈지수가 다른 직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생산직은 0.48로서 가장 높은 박탈지수를 보였고 농업직이 0.3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판매직(0.22), 서비스직(0.18)도 비교적 관리직이나 전문기술직에 비하면 높은 박탈지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직업간 임금격차가 본 연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직업적 위세가 낮을수록 소득의 박탈감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본 소득의 박탈감은 학력이 낮을수록 박탈감이 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박탈감이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박탈지수가 0.00으로 소득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의 졸업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계층귀속의식에 따른 소득의 박탈감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中上層이상의 귀속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전혀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中下層 이하의 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득에 대해 비교적 높은 박탈감을 나타냈고 下層의 계층귀속의식을 지닌 사람은 박탈지수가 0.75로서 본 고에서 측정한 6가지 박탈지표중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다. 이것을 보면 상층귀속의식을 지닐수록 박탈감이 낮으며 하층의식을 지닐수록 박탈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에 대한 한국인의 박탈감은 다른 5개의 지표에 비해 가장 많은 박탈감을 보여주고 있다.

2. 教育의 剝奪感

현대사회에서 교육정도는 그 사람의 계층적 지위의 상승이동은 물론 가족의 생활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불평등 연구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육정도가 불평등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계층의 중요한 평가요인으로서는 재산(45.7%), 학력(31.4%), 직업(23.9%), 수입(3.9%), 가문(2.9%), 인격(1.8%)<sup>17)</sup> 등으로 나타나 학력이 계층평가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던 한국인들이 느끼는 교육에 대한 박탈감을 여러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3을 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박탈감이 -0.01로 박탈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교학력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농촌일수록 교육에 대한 박탈감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직(0.06), 관리직(-0.19), 사무직(-0.10) 등은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학력이 대부분이 대졸이상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직이 박탈

(표 3) 교육의 박탈감

변 수	지 수	변 수	지 수		
지 역	서울시	-0.01	국졸이하	0.56	
	지할시	0.13	중 졸	0.59	
	중소도시	0.16	고 졸	0.21	
	농어촌	0.39	대졸이상	-0.39	
직 업	전문기술직	-0.06	계층의식	上 下	-0.33
	관 리 직	-0.19		中 上	-0.28
	사 무 직	-0.10		中 下	0.09
	판 매 직	0.33		下 上	0.37
	서 비 스 직	0.28		下 下	0.66
	농 업 직	0.48			
	생 산 직	0.41			

17) 金泳談, 「韓國社會階層研究」, 一潮閣, 1982, pp.335~336. 교육과 사회계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金泳談(1982) 11장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학력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崔賢淑, 韓國教育機會不平等에 關한 研究, 「社會福祉研究」 제16집, 中央大 社會福祉學科 1982 참조



지수 0.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생산직(0.41), 판매직(0.33), 서비스직(0.28)의 순서로 나타났다. 교육의 박탈감도 소득의 박탈감과 마찬가지로 직업적 위세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른 교육의 박탈감의 정도를 보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박탈지수가 -0.39로 나타나 거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현상은 차이는 크지 않지만 중졸자들의 박탈지수가 국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계층의식별로 교육에 대한 박탈감을 보면 中上層 이상의 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교육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中下層이하의 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박탈감을 지니고 있어서 下上層이 0.37, 下下層이 0.6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층귀속의식이 낮을수록 교육의 박탈감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醫療의 剝奪感

현대 복지국가에서 국민들의 의료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어 이미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부문도 여타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서<sup>18)</sup> 국가의 의식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와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료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보험제도는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여러가지 모순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회복지정책 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의 역진성문제가 그것이다.<sup>19)</sup> 또한 최근에 실시된 농·어촌 의료보험도 시행초기부터 여러가지 마찰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8) Lesley Doyal,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London, Pluto Press 1983, 1장 참조

19) 우리나라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는 金泳謨·元寅鶴, 國民醫療皆保險化의 合理的 方案, 「社會政策研究」 제 2집, 1982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문제는 元寅鶴, 韓國醫療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에 관한 實證的 研究 「社會政策研究」 제 3집, 1983

〈표 4〉 의료의 박탈감

별	수	지	수	별	수	지	수
지역	서울시	-0.01		학력	국졸이하		0.36
	직할시	0.03			중졸		0.28
	중소도시	0.01			고졸		0.11
	농어촌	0.51			대졸이상		-0.32
직업	전문기술직	-0.13		계층의식	上 下		-0.30
	관리직	-0.29			中 上		-0.23
	사무직	-0.38			中 下		-0.08
	판매직	0.42			下 上		0.26
	서비스직	0.20			下 下		0.67
	농업직	0.48					
	생산직	0.30					

한국인의 의료에 대한 박탈감을 측정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민의 경우는 박탈지수가 -0.01로 나타나 의료혜택이 상당히 폭 넓게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할시와 중소도시는 지수가 0.03, 0.01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는 0.51로 매우 심각한 의료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험의 혜택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의료자원의 도시지역 편중문제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다시 직업별로 보면 지역별 분석보다는 한층 의미있는 결과가 보인다. 우선 전문기술직(-0.13), 관리직(-0.29), 사무직(-0.38)이 모두 負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이 기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직업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판매직은 박탈지수가 0.42를 보였고 농업직은 0.48로 여타 직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박탈감을 보이고 있는데 판매직의 경우는 대부분이 영세자영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이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농업직 종사자들이 높은 수치를 보인 것도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sup>20)</sup> 이렇게 볼 때 생산직의 박탈지수가 판매직과 농업적보다 낮게 나타난 것도 생산직 종사자들이 판매직, 농업적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이 많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0) 본 조사는 농어촌의료보험이 확대 실시 되기 전에 조사된 것임.

한편 이것을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박탈감이 높게 나타나고 그  
 것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  
 듯이 학력과 직업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로서 보인다.

이것을 다시 계층의식별로 보면 中下層이상의 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下上層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下下  
 層은 매우 심한 박탈감을 보이고 있다.

의료혜택에 대한 박탈감이라는 차원에서 의료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  
 직도 한국인들에게는 의료혜택이 사회적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住宅의 剝奪感

주택문제는 소득, 교육, 의료의 문제와 함께 복지정책의 주요한 대상을  
 이루어왔다. 한국에서는 주택문제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가 정부보고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보급율을 전국적으로 보면<sup>21)</sup> 1960년에 82.5%이었던 것이 '70년에는  
 78.2%, '80년에는 73.2%로 떨어졌고 '84년에는 71.1%를 기록하였다. 반  
 대로 주택부족률은 이와는 반비례하여 1960년에 17.5%, '70년에 21.8%,  
 '80년에 26.8%로 상승하여 '84년에는 28.9%까지 올라갔다. 이런 주택  
 부족 현상은 도시지역이 더 심각하여 1960년에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률이  
 35.2%, '70년에 41.8%, '80년에 41.4%, '84년에는 40.5%로 나타나 평  
 균 40% 정도의 주택부족률을 계속 보이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한국인의 주택에 대한 박탈감은 표 5와 같다.

먼저 이것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민의 주택박탈감이 가장 낮고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주택부족률이 심각함에도 불구  
 하고 서울시민의 박탈감이 낮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집안의 부대시설이나 좋은 주거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상세작용을 한 것으로

21)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1960, '70, '75, '80  
 건설부, 「건설통계연람」, 1982~85

〈표 5〉 주택의 박탈감

번	수	지	수	번	수	지	수		
지	서울시	-0.05	학	국	졸	이	하		
	직	0.03		중	졸		0.21		
	중	0.15		고	졸		0.14		
	농	0.05		대	졸	이	상		
직	업		계	층	의	식	上	下	-0.53
	전문기술직	-0.02					中	上	-0.33
	관리직	-0.17					中	下	-0.02
	사무직	-0.05					下	上	0.33
	판매직	0.07					下	下	0.45
	서비스직	0.12							
	농업직	0.06							
생산직	0.42								

추측이 된다. 이것을 직업별로 보면 앞에서 살펴본 의료의 박탈감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주택조건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판매직, 서비스직, 농업직등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 수치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생산직 종사자들의 경우는 박탈지수가 0.4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 주택조건에 대한 불만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의료, 교육등에서는 농업직과 생산직종사자들 박탈감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높은 박탈지수를 보였는데 주택조건에서는 농업직과 생산직의 박탈지수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은 주택의 박탈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국졸이하(0.06), 고졸(0.14), 중졸(0.2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졸과 고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졸이하의 사람보다 박탈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계층의식별로 주택의 박탈감을 보면 中下層이상의 계층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下層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 5. 飲食 및 衣服의 剝奪感

먼저 음식에 대한 박탈감을 보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음식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박탈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변수별로 보아도 생산직 종사자와 下下層 의식을 지닌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負의 박탈지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보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적 위세가 높을수록, 상층의식을 지닌 사람일수록 그리고 도시지역 사람일수록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음식의 박탈감

변 수	지 수	변 수	지 수		
지 역	시 울 시	-0.29	학 력	극 중 이 하	-0.05
	적 탈 시	-0.17		중 중	-0.06
	중 소 도시	-0.16		고 중	-0.20
	농 어 촌	-0.15		대 중 이 상	-0.34
직 업	전문기술직	-0.16	계층의식	上 下	-0.76
	관 리 직	-0.32		中 上	-0.44
	사 무 직	-0.29		中 下	-0.21
	관 대 직	-0.10		下 上	-0.04
	서 비 스 직	-0.18		下 下	0.23
	농 업 직	-0.03			
	생 산 직	0.04			

〈표 7〉 의복의 박탈감

변 수	지 수	변 수	지 수		
지 역	시 울 시	-0.34	학 력	극 중 이 하	-0.07
	적 탈 시	-0.19		중 중	-0.03
	중 소 도시	-0.18		고 중	-0.20
	농 어 촌	-0.15		대 중 이 상	-0.40
직 업	전문기술직	-0.25	계층의식	上 下	-0.64
	관 리 직	-0.35		中 上	-0.46
	사 무 직	-0.30		中 下	-0.23
	관 대 직	-0.18		下 上	-0.04
	서 비 스 직	-0.02		下 下	-0.12
	농 업 직	-0.11			
	생 산 직	0.02			

의복에 대한 박탈감도 음식에 대한 박탈감과 거의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복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산직 종사자(0.02)밖에 없으며 전체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박탈감과 마찬가지로, 다소간의 편차는 있지만 도시지역사람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적 위세가 높을수록, 그리고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IV. 結 論

각 지표에 대한 박탈감은 이미 본문에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개 지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사회정책의 주요대상에 대한 한국인의 박탈감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이 방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해 본 연구의 몇가지 쟁점과 제안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표 8을 보면 6개 지표에 대한 박탈감의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sup>22)</sup>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직종사자와 下下層 일부를 제외하면 음식과 의복에 대한 한국인의 박탈감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소득부분을 제외한다면 서울시에 거주자중에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고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 사무직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서 中上層이상의 계층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교육, 의료, 주택, 음식 및 의복에 대해 거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대졸이상 中上層의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소득에 대한 박탈감도 없다). 그러나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인이면 어느 누구나 어느정도의 박탈감은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 의료, 주택에 대한 박탈감도 상당히 폭넓게 퍼져있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또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이 농업직과 생산직 종사자들로서 하층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의 박탈감의 정도는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22) 도표상에 나타난 구분의 기준은 0점과 가장 박탈지수가 높은 부분 0.75(下下層의 소득박탈감)를 2로 나누어준 지수 0.38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각 부분의 박탈감의 차이를 뚜렷하게 부각시켜준다는 의미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

〈표 8〉 6개 박탈지표에 대한 박탈감

변수	지표	소득	교육	의료	주택	음식	의복
지역	서울시	△	○	○	○	○	○
	직할시	△	△	△	△	○	○
	중·소도시	△	△	△	△	○	○
	농어촌	△	×	×	△	○	○
직업	전문기술직	△	○	○	○	○	○
	관리직	△	○	○	○	○	○
	사무직	△	○	○	○	○	○
	판매직	△	△	×	△	○	○
	서비스직	△	△	△	△	○	○
	농업직	×	×	×	△	○	○
	생산직	×	×	△	×	△	△
학력	중하이하	×	×	△	△	○	○
	중중	△	×	△	△	○	○
	고중	△	△	△	△	○	○
	대중	○	○	○	○	○	○
계층의식	上	下	○	○	○	○	○
	中	上	○	○	○	○	○
	中	下	△	△	○	○	○
	下	上	×	△	△	△	○
	下	下	×	×	×	×	△

비고: ○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박탈지수 ≤0.00), △은 박탈감을 어느정도 느끼는 부분(0.00 < 박탈지수 ≤0.38), ×은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는 부분(0.39 < 박탈지수 ≤0.75).

있다. 특히 생산직 종사자들은 6개 지표 전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심한 박탈감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이 된다. 그리고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생산직 못지 않게 심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교육, 소득, 의료, 주택에 대한 한국인의 박탈감은 일반적 의미의 사회계층과 밀접히 연관되며, 특히 중하중이하의 사급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잠정적 결론에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박탈감의 계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언급되듯이 박탈감의 정도가 심각한 가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박탈감의

최고지수는 2점인데 가장 높게 나온 지수는 0.75 밖에 안되기 때문이며 또한 본문에서 보았듯이 각 부문에 대한 박탈 지수가 0.5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진전되고 정확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방법론상의 몇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박탈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Likert 척도를 응용했는데 연구과정 가운데 이 척도가 정확한 박탈감을 반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응답항목의 '중앙집중화 현상'<sup>23)</sup>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 점은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로, 본 연구가 특정계층이나 지역이 아닌 전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명확한 '준거집단'을 설정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박탈감은 비교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준거집단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때문에 각 지표를 여러 문항으로 구체화시키지 않았는데 질문 문항의 구체화·정밀화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문화적 측면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박탈감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접수일자 : 1987년 12월 13일)

23) 예를 들어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그저그렇다(혹은 보통이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이라는 5개의 응답항목이 주어지면 ③ 그저그렇다에 많은 응답이 나오는 경우를 들 수 있다.